

국가식품클러스터에 道 농산물 공급

입주기업 원가 절감·지역농가 판로 구축... 상생발전 방안 마련

송하진 도지사는 7일 전북도청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도내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진과 좋은 일자리 찾기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도내 농산물 공급체계'에 대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과 통합마케팅조직, 농업기술원, 익산시, 농협전북본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도내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현황 및 향후과제를 논의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농산물 공급체계의 주요 골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기업수요를 접수하고 통합마케팅조직 등 로컬생산조직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도, 익산시, 농협도본부, 통합마케팅조직,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T/F팀은 올해 상반기에 입주기업인 고구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고, 하반기에 기업들의 원료

농산물 수요를 토대로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39개 분업기업들의 원료 농산물 수요를 보면, 올해 국산농산물 사용량은 12,234톤이며, 향후 추가로 유치될 기업들을 고려할 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농산물 수요는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산물 수급에 대한 전북도와 관계기관의 이 같은 선제적인 대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에게는 원료 농산물 탐색비용 절감을, 도내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기업과 농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도가 조성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한 축이자 농가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창구로서 '제값 받는 농업'의 거점이며, 도민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다"며 "도내 농산물 공급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명품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학교병원과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7일 본관 2층 한벽루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의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말기 암 환자와 행복한 동행”

전북대학교병원-도로공사 전북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맞손

전북대학교병원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말기 암환자의 치유와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7일 본관 2층 한벽루홀에서 강명재 병원장과 전북지역암센터 김경수 소장, 한국도로공사 정광철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의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은 전북대학교병원 지역암센터에서 불치질환의 말기환자 및 가족에게 가능한 한 편안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돌봄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 측에서는 병원과 사전 협의한 일시에 수목원을 개발하고 병원이 진행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이달과 내달 중 호스피스병동 및 가정에서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주수목원에서 '행복한 동행'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18일에는 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돌봄을 받았던 환자의 가족여행을 위한 사별여행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공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암 예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도로공사 가족구성원 중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협조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송하진 도지사,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광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및 도내 적십자 봉사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적십자 봉사원 한마음대회 행사가 열렸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전북선수단 24개 종목에 417명 출사표

도의회 문건위, 따뜻한 격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7일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이 열리는 전북체육관을 방문해 전북 선수단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

문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물론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완수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시간들이 값진 거름이 되어서 이번 대회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격려하며 "선수 각자가 전북 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경기에 임해 전북도민에게 희망과 감동의 무대를 펼쳐달라"고 말했다.

올해로 제37회를 맞이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리며 전북 선수단은 24개 종목에 417명이 출전, 종합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장애인 10명 중 8명 “전북 여행 불편하다”

도의회 최은희 의원 발의
관광약자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관광객 조성사업의 범위를 담고 있다.

이 중 주요 관광환경 조성사업에는 관광시설 정비제공과 안내 서비스,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은희 의원은 "관광정책은 모든 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이고 특히 민선 6기 도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관광권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조치와 정부 및 자치단체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정책발굴이 없다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 공론화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게 최은희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장애인 여행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7%가 여행여건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이동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많았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가 개최한 가운데 최은희 의원(사진)이 발의한 전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7일 가결처리 됐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앞으로 도내 장애인들과 노인 등 이른바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크게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5년 단위의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관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내달 13일까지 상황실 운영
순찰 강화·사고시 신속대처

새만금환경청은 추석(10월4일) 연휴 기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추석 연휴 전(9월 8일~29일)에는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단속에 나서고,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함께 점검한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의심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특별감시 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이후(10월 10~13일)에는 시설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새만금환경청 차원의 기술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해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